

KBL의 ‘이상한’ 징계

김승현 트레이드 관련 오리온스에 500만원 제재금
분쟁 조정 신청 LG 요구, 수용도 기각도 안한 결정



한국농구연맹(KBL)은 김승현(사진)의 트레이드 과정에서 LG와의 구두합의를 해지한 오리온스에 제재금 5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KBL은 21일 열린 재정위원회에서 LG가 신청한 분쟁조정 요청 건을 논의한 끝에 상벌규정 중 ‘KBL 명예 실추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나흘이나 시간차를 두고 재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한 데에서 KBL의 고심이 읽힌다. 500만원의 제재금 역시 “KBL이 매길 수 있는 최대한의 벌금 한도”라고 KBL은 밝혔다.

그러나 원고에 해당하는 LG가 이 판결을 단순히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사안이다. 첫째, 오리온스에 부과된 500만원은 LG가 당초 요구한 액수(구단 이미지 실추에 따른 보상금 100억+김현중의 1일 연봉 436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차치하고, 그나마 이 돈이 들어가는 곳은 LG가 아니라 KBL이다.

둘째, 그 징액 근거가 ‘KBL 회원사간의 신뢰하락, 그리고 언론 매체에 부정적인 기사가 게재되는 등 KBL의 품위 손상, 혼선 초래의 책임’을 물은 데 있다는 것이다. LG의 요구 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KBL의 품위에 초점이 맞춰진 판결인 셈이다.

이와 관련 KBL은 “재정위원회는 LG의 안을 검토할 수는 있다. 그러나 ‘A구단이 B구단보다 얼마를 보상하라’는 식으로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KBL이 ‘권고’는 명할 수 있지만 안 따르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결국 KBL의 규정대로라면 애당초 재정위원회에다 보상 등 4가지 청원을 넣었던 LG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논리가 된다. 이에 관해 KBL은 “LG가 무슨 생각으로(민사소송이 아니라) 재정위원회에 판단을 구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정원 사항이 인정도 기각도 받지 않고, 엉뚱한 결론이 나온 데 대해 LG는 공식입장을 일단 유보하고 있다. 수뇌부 회의를 거쳐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내부 기류는 “이걸 어떻게 넘어가느냐”는 정서가 우세하다. 실제 민사소송까지 검토했다. 다만 농구계 밖으로 사안을 끌고 나가는 데 따른 부담도 만만찮다. 결국 LG 사정만 더 딱하게 흐르고 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matrsi21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안양실내체육관은 홈팬들로 가득 찼다. 5500석의 좌석은 매진. KGC인삼공사는 일찍까지 판매했고, 경기장에는 무려 6127명의 관중이 들어왔다. 홈팬들의 성원 속에 KGC인삼공사는 8연승의 휘파람을 불렀다.

8연승…KGC인삼공사 “新 봤다”

오세근·이정현 등 주전 고른 활약
SK 잡고 구단 최다연승 기록 경신
모비스 레더는 한경기 최다 31R



슈퍼루키 오세근(200cm)이 홈팬들의 산타가 됐다. 안양 KGC인삼공사가 8연승을 달리며,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렀다.

KGC인삼공사는 25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1~2012 KBL국민카드 프로농구에서 오세근(10점·9리바운드), 양희종(13점), 로드리 화이트(14점) 등 주전들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 서울 SK를 80-63으로 꺾었다. 이정현(18점)은 승부의 분수령이 된 4쿼터에만 12점을 몰아치며 승리에 기여했다. 이로써 구단

최다연승기록을 또 한번 경신한 KGC인삼공사는 8연승을 이어가며 원주 동부가 10월 세운 시즌 최다연승기록과 타이틀을 이뤘다. 프로농구 역사상 최다연승기록은 KGC인삼공사의 전신인 안양 SBS가 2005년 기록한 15연승이다. 23승7패(2위)를 기록한 KGC인삼공사는 선두 동부(25승6패)와의 승차를 1.5경기로 유지했다. 반면 SK는 9연패에 빠지며 11승19패로 리그 8위에 머물렀다.

이날 관중석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초만원이었다. 5500석의 좌석은 매진됐고, KGC인삼공사는 입석까지 내놓았다. 체육관을 가득 메운 6127명은 올시즌 KGC인삼공사의 최다관중이었다. KGC인삼공사는 63-60으로 앞선 경기 종료 5분57초전 이정현의 레이업슛에 이어 추가 자유투로 앞서나갔다. 이어 김

성철과 이정현의 득점으로 점수차가 72-60까지 벌어져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다. 오세근은 골밑에서 든든하게 버티며, 리바운드와 수비 등 모든 일로 팀 승리에 공헌했다.

올시즌 KGC인삼공사 돌풍의 주역은 단연 오세근이다. 올시즌 30경기에 모두 출장해 경기당 평균 16.5점, 7.9리바운드, 1.2블록슛을 기록 중이다. 최진수(오리온스)와 김선형(SK) 등 주전급 신인들도 “신인왕 1순위는 단연 오세근”이라고 인정한다. KGC인삼공사 이상범 감독은 최근 오세근을 “MVP후보”라고까지 치켜세운 바 있다. 농구전문가들은 오세근을 김주성의 신인시절과 비교하며, 또 한 명의 슈퍼스타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대학시절부터 인정받았던 공격력은 물론, 수비에서도 영리한 플레이를 한다는 평

이다. 그러나 오세근은 “난 아직 김주성 선배님 등의 플레이를 보면서 배우는 단계일 뿐”이라며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창원에서는 울산 모비스가 테렌스 레더를 앞세워 LG를 76-64로 꺾었다. 레더는 역대 한 경기 최다인 31개의 리바운드를 잡고, 32득점·블록슛 4개를 기록하는 ‘괴물급’ 활약을 펼쳤다. 종전 한 경기 최다 리바운드 기록은 라이언 페리맨(동양 오리온스)이 2001년 세운 30개였다. 모비스는 13승17패를 기록하며 LG와 함께 공동6위에 올랐다. 동부는 원주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로드 벤슨(25점·19리바운드)과 황진원(18점)의 활약에 힘입어 고양 오리온스를 72-66으로 꺾고, 3연승을 달렸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NFL 워드 “더 펄 것”…은퇴설 부인



미국프로풋볼(NFL)의 한국계 스타인 하인스 워드(35·피츠버그·사진)가 최근 불거진 은퇴설을 부인했다. 미국 NBC 스포츠는 25일(한국시간) 워드가 지역신문 피츠버그 포스트 가젯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계약기간이 2년 남

아 있다. 올해가 마지막 시즌이라고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피츠버그는 올시즌 후 워드를 방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워드가 올시즌 후 피츠버그와 결별하고 2006년 피츠버그의 슈퍼볼 우승을 이끌었던 켄 워렌트 감독이 이끄는 애리조나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기쁘다~ 단비 오셨네”

돌아온 김단비 3점슛 2방 등 16득점
신한, 신세계에 역전승 5연승 신바람



안산 신한은행의 질주가 크리스마스에도 계속됐다. 신한은행은 25일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신세계 이마트 2011~2012 여자프로농구 신세계와의 원정경기에서 74-66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5연승을 달린 신한은행은 18승3패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반면 신세계는 뒷심 부

족에 무너지며, 4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2쿼터까지는 양팀이 33-33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하지만 김지윤(16점·5어시스트), 김정은(13점), 허윤자(13점), 강지숙(11점) 등이 고른 활약을 펼친 신세계는 3쿼터까지 52-48로 한 발 앞서갔다. 승부의 분수령은 4쿼터였다. 4쿼터 초반 허윤자, 김정은의 득점에 힘입은 신세계는

59-50까지 달아나며 연패에서 탈출하는 듯 했다. 그러나 신한은행에는 셋백 김단비가 있었다. 김단비는 50-59로 뒤진 상황에서 3점포를 터트리며 추격의 불씨를 명했다. 이어 신한은행은 최윤아, 하은주(11점)의 골밑 득점에 김단비의 외곽포가 꽃이며, 종료 4분27초를 남기고 64-63 역전에 성공했다. 이후 김연주의 3점포와 이

연화(14점·7리바운드)의 득점까지 터지자 신세계는 추격 의지를 잃었다.

발목 부상을 당고 일어난 김단비는 3점슛 2개를 포함해 16점을 기록하며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신한은행 입담식 감독은 “최윤아가 장염 때문에 오전에 링거주사까지 맞았다. 김단비 역시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다. 하지만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은 것이 승인이다. 앞으로 4~5경기를 잘 치른다면 정상에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희 기자

“섬소년 최경주, 바닷가 모래밭서 병커샷 훈련”

PGA, 연습모습 재연 동영상 소개

미 PGA 투어는 홈페이지를 통해 최경주(41·SK텔레콤)의 독특한 훈련법을 소개했다. PGA투어닷컴은 25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1분43초 분량의 동영상(사진)을 공개했다. 최경주의 고향인 전남 완도의 풍경과 바닷가에서 샷을 연습하는 모습을 담았다. 미 골프채널이 2011년 PGA 투어 결산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했던 장면을 편집한 동영상이다.

최경주는 골프를 시작했던 시절 바닷가 모래밭에 골프공을 놓고 샷을 하는 모습을 재연했다. 골프장이 없었고 마땅히 훈련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훈련했다고 소개했다. 또 골프코스 병커의 모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마른 모래와 젖은 모래를 구별해 병커샷을 했다고 밝혔다. 파도가 닿지 않은 마른 모래에서 샷 연습을 하다가 파도가 밀려오면 젖은 모래에서 따로 샷을 하는 연습 방법을 소개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난닝 Lotto 6/45 당첨번호

● 제473회 Lotto6/45 당첨번호

당첨번호						2등 보너스 숫자
8	13	20	22	23	36	34

1등 총당첨금	1 3 0 0 1 6 7 2 2 5 2
---------	-----------------------

*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금인 기준이며, 당첨 개입자수가 복수인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금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및 당첨자수	당첨금(만)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 일치	4명	3,250,418,063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 5개 숫자 일치	36명	60,192,928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5개 숫자 일치	1,313명	1,650,378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4개 숫자 일치	67,064명	50,000 50,000원
5등 3개 숫자 일치	1,148,971명	5,000 5,000원

* 상기 당첨금은 1개입당 당첨금액 기준입니다.(세금 공제 전)

● 추첨일 : 2011. 12. 24

● 당첨금 지급기간 :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까지
(*11년 7월부터 시행, 422회차(11년 1월 1일 추첨부터 소급 적용)

● 난닝로또 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9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 www.6450lotto.net

로또 구입시 : 로또구매는 일확천금의 요행이 아니라 가벼운 오락 및 기부이며, 지나친 복권구매는 도박중독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청상세면19세 미만은 복권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복권은 1인당 1회 10만원을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